



군종주보

2026년 9월 20일(제1318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는 천주교인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뒤를 따르려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걸으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가는 길입니다. 곧 매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수많은 인간적 탐욕과 안일함, 그리고 분심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일상적 순교’의 길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조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의 십자가를 목숨을 다해 짊어졌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신앙 선조들의 고결하고 위대한 순교의 정신이 가능했던 이유를 사도 바오로는 오늘 제2독서인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

니까? 칼입니까?”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친 평신도 지도자 정하상 바오로 성인도, 칼날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자신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음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삶과 죽음 전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피를 흘리는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탐욕 앞에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확신했듯,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읍시다. 그리하여 순교 선조들의 고귀한 믿음을 이어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신실하게 뒤따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조현우(불리시오) 신부
용성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서 회답송 제 2 독서 복음 환호송

지혜 3,1-9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로마 8,31ㄴ-39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영성제송

루카 9,23-26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따라서 해군에서는 외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내적 충실을 위해 관심을 기울였다. 1945년 11월 해군은 해사대라는 비공식 단체에서 해방병단이란 공식적인 군사단체로 발전하면서 단원들의 군기 확립과 좌익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병대를 신설하였다. 이어 법무감실도 생겼으며, 군악대도 인천 기지에서 조직되었다. 그리고 해방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개편된 후 1947년 2월 당시 총사령부 안에 정훈감실의 모체가 되는 공보실이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설 기구들은 해군의 정신적인 문제에 직접 간여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었다. 헌병대와 법무감실은 장병들의 행동에 외부적인 제재나 처벌을 가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제한성이 있었다. 공보실도 정훈의 전신이기는 하였지만 오로지 공보 사항을 취급하는 기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들 기구는 장병들의 마음을 사상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해군은 정신적 분야를 담당해야 할 전문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에 해군의 손원일 제독은 1948년 9월 15일 정달빈 목사를 초빙하여 정훈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위 계급을 부여하였다. 이어 그는 군목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해 11월 해군사관학교 특교 제3차로 입교하여 3개월간의 훈련을 받았으나 군종목사가 아니라 정훈장교로 임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1년 11월 김동한 신부가 해군 군종신부로 임관되어 진해 지역에서 활동함으로써 해군에서의 천주교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2) 해군 군종신부의 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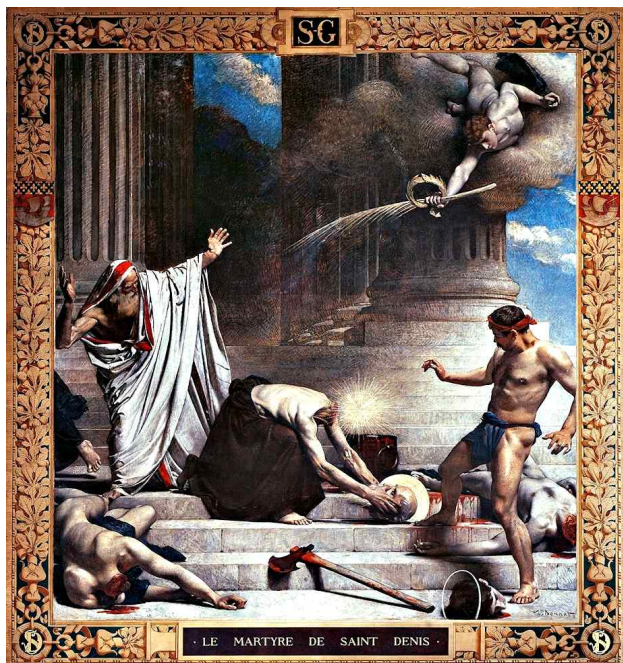
정달빈 목사에 이어 1951년 6월 7일 4명의 목사가 제1기 특과 사관후보생으로 해병 학교에 입교하여 1개월간 훈련을 받고 임관하였다. 천주교 측에서는 1951년 8월 10일 김동한 신부가 해군의 첫 군종신부로 2명의 목사와 함께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3개월의 교육을 받고 11월 10일 중위로 임관하여 진해 해군통제부 사령부의 군종과장으로 부임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군종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귀한 선배들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엄두도 못 내고 주저앉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td> <td style="width: 50%;"> 하지만, 희망을 품고 한발 한발 묵묵히 걸은 이들이 있습니다. </td> </tr> <tr> <td> 생각조차 못 하고, 얼굴을 돌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td> <td> 크게 사랑한 이들입니다. 귀한 선배들입니다. </td> </tr> </table>	엄두도 못 내고 주저앉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한발 한발 묵묵히 걸은 이들이 있습니다.	생각조차 못 하고, 얼굴을 돌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크게 사랑한 이들입니다. 귀한 선배들입니다.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장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엄두도 못 내고 주저앉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한발 한발 묵묵히 걸은 이들이 있습니다.					
생각조차 못 하고, 얼굴을 돌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크게 사랑한 이들입니다. 귀한 선배들입니다.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성 드니의 순교



레온 보나(Leon Bonnat, 1833-1922), 1874~1885년 제작
파리 팅테옹(Panthéon) 벽화

프랑스 파리 팅테옹(Panthéon)은 원래 가톨릭 성당으로 지어졌으나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프랑스를 빛낸 위인들의 영묘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다 1870년대에 프러시아와의 전쟁과 파리 코뮌 같은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규모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파리의 첫 주교이자 파리의 수호성인인 성 드니가 프랑스의 역사적·종교적 기원을 상징하는 인물로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로 선정되었다.

성 드니는 3세기경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총독과 이교도 사제들에게 잡혀 동료들과 함께 잔혹하게 고문을 당한 후, 파리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서 참수형에 처해졌다. 이로 인해 이 언덕은 ‘순교자의 산’이라는 뜻의 몽마르트르(Mont Martre)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지금은 파리에서 가장 많은 이가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드니 성인은 목이 잘린 후 바닥에 떨어진 잘린 머리를 직접 양손으로 집어 들고, 천사의 인도와 호위를 받으며 북쪽을 향해 약 6~10km를 걸었고, 그동안에도 회개와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를 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머리를 들고 걷다가 마침내 쓰러져 숨을 거둔 자리에 한 여성이 시신을 묻고 작은 기념당을 세웠는데, 7세기에 이르러 왕의 후원을 받으며 수도원이 발전·확장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파리 북부 외곽에 있는 ‘생드니 대성당’이 되었다. 이곳은 프랑스 고딕 건축의 시발점이자, 역대 프랑스 국왕과 왕비가 묻힌 공식 왕실 영묘가 된다.

본 작품은 성인의 참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흰 대리석 계단과 건물을 배경으로 한 화면 중앙에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양손으로 집어 드는 양상한 몸의 성인이 보이고, 원래 성인의 머리가 있던 곳에는 강한 금빛 후광이 빛나고 있다. 주위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은 도끼와 목이 잘린 다른 순교자들의 시신이 보인다. 이 작품은 흰 대리석 건물과 대리석 조각상처럼 표현된 성인과 동료 사제들의 흰 몸, 순교자들의 시신과 도끼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 처형인의 머리에 두른 붉은 띠 등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색채 대비가 특징적이다. 또한 성인의 차분한 모습과 처형인들의 격렬한 감정이 대조를 이룬다. 화면 상단에는 천사가 순교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월계관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시 - 순교자 대독일: 농무대 이승구 신부

◆ 교구장 동정

- 만포대(해군2함대)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20일(주일)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9월 21일(월)~22일(화),

서울대교구 성 앵베르 센터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